

이번 겨울방학 내가 한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친구와 시답잖은 이야기를 하다 나온 것인데, 작품설명을 할 때에 어려운 단어를 써가며 포장하는 것은 쓸모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의 글은 어려운 말 투성이이며, 나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로 채우는 것은 심히 모순적인 일이다. 이번 과제로 나온 독후감은, 이전에 나 자신이 레포트를 작성할 시에 썼던 방법과는 다르게 쓸 것이다. 책을 읽으며, 또한 읽고 나서의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어떤 꾸밈도 걸치지 않은 채 써내려 가볼 예정이다.

나는 평소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 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도 건축가로 활동하기 전에 화가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라는 곳을 오기 위해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질문으로 좋아하는 건축가를 소개해보라는 질문이었다. 기회다 싶어 나는 르 코르뷔지에 에 대하여 설명했고, 면접덕분인지 나름 괜찮은 성적으로 이 곳에 붙어 오게 되었다. 원래 사전에 생각했던 레포트의 내용은 '건축이란 무엇인가? 에 관하여 쓰려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건축가 각 개인의 건축물, 그 건축물에 담겨있는 의미, 그리고,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건축가의 사상을 알아보고 싶어, 이 <집을 순례하다> 라는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두 가지 건축물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는데, 이 건축물들의 간단한 소개와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볼까 한다.

## 1. 르 코르뷔지에 <어머니의 집> (통칭 : 작은 집)

책에 있는 내용을 읽기 전에, 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그림 작품까지도 일단 사진 이미지를 꼭 먼저 보는 편이다. 글을 읽고, 건축물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내가 본 첫 인상, 그리고 다 읽고, 이해하고 나서 본 또 다른 인상의 차이가 얼마나 클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르 코르뷔지에의 ‘어머니의 집’ 은 그 두 인상의 차이가 매우 커, 나에게서는 신선한 충격이며 체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집’ 외관의 첫인상은 마치 컨테이너 박스 같았다. 따스하고 아늑할 것만 같은 건축물의 제목과는 상반된, 차갑고, 어떻게 보면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외관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책을 읽음과 동시에, 시선의 방향이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전에 ‘어머니의 집’ 을 비판적으로 본 것을 매우 후회했다. 집안 내부 하나하나에 르 코르뷔지에의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또한 어머니뿐만 아닌, 그녀의 애완동물, 개 혹은 고양이를 위한 부분까지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건축물 내부를 살펴보면,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실내로 자연광을 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물이 바로 <리본 윈도 ribbon window> 라는 창문이다.



르 코르뷔지에

<어머니의 집 외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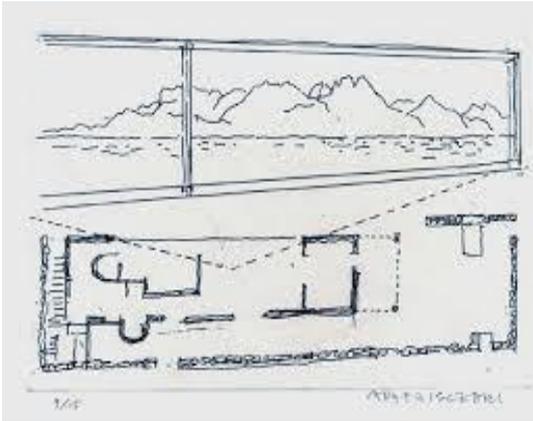
1924



르 코르뷔지에

<어머니의 집 외관 2>

1924



〈어머니의 집 평면도, 리본 윈도우 스케치〉



〈어머니의 집에 설치된 리본 윈도우〉

1) 〈리본 윈도우 ribbon window〉

나 역시도 창문 이라고 하면, 그저 심심한 벽을 위해 미적으로 설치되며, 세로가 가로에 비해 길다는 조적조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리본 윈도우’ 는 세로 46센티미터, 가로 11미터 라는 방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 창문 덕에 자칫하면 단조롭고, 답답할 수 있는 적은 면적의 실내를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다.



〈어머니의 집 전망창〉



〈어머니의 집 내부에서 바라본 정원〉

2) 〈외부 거실〉

이러한 내부뿐만이 아닌, 처음에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던 외부까지도, 옥상과 건축물 밖 정원까지 시선이 다다르니 예전에 생각했던 내 첫인상이 완전 뒤집혔다. 따스하며 녹색 빛, 즉 자연의 색상이었다. 빛을 받지 못하는 내부에는 수평적 창문을 이용해 자연광이 들도록, 그와 상반된 빛을 과하게

받는 외부, 정원에는 거대한 나무, 돌 벽 등을 이용하여 그늘이 들도록 설계한 걸 보니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이 돌 벽을 보면 또 하나 재미있는 요소가 숨겨져 있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벽 중간에 마치 창문처럼 사각의 통로가 뚫려있다는 점이다. 이 통로, 즉, ‘전망창’ 은 레만 호수의 빼어난 절경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정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거실, <외부 거실> 이라 칭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다.



<어머니의 집의 옥상 정원>



<옥상 정원 2>

### 3) <옥상 정원>

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 한 가지는 바로 <옥상 정원> 이다. 나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설계한 것 이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책을 보니, ‘옥상 정원’ 은 굉장한 단열 효과가 있던 것에 놀라웠다. 또한, 옥상에 단순하게 화단, 혹은 화분을 놓아 키우는 것이 아닌, 옥상 자체에 흙을 덮어 나무가 뿌리내릴 수 있게 한 요소들이 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 2. 르 코르뷔지에 <작은 별장>

르 코르뷔지에 <작은 별장의 외관> 1956

작은 별장 역시, 나는 그에 대한 내용 보다는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보았다. 이름에 걸맞게 외부에서 상상한 내부는 꽤나 작아보였다. 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걸면을 통나무로 만든 건축물을 보니 친환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집’의 첫 인상과는 상반 되게, ‘작은 별장’은 나에게 처음부터 친근한 이미지를 주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이 작고 소박하게 지은 별장은 나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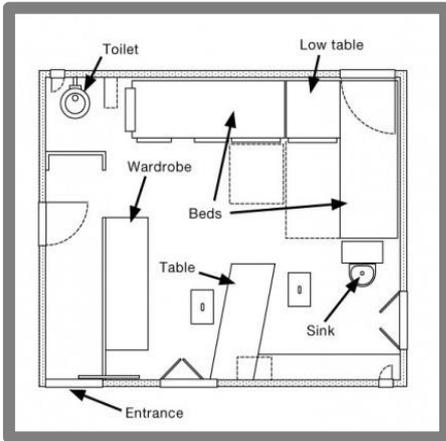
있어 큰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애초에 르 코르뷔지에의 대표적 건축물, <sup>1</sup> <빌라 사보아>, 라던가 <sup>2</sup> <유니테 다비타 시옹> 등을 보면 친환경적이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빌라 사보아의 입면전경>



<유니테 다비타 시옹의 입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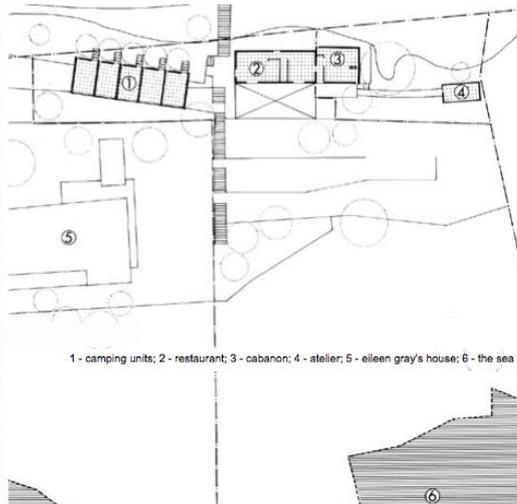
〈작은 별장의 평면도〉



〈작은 별장의 입구〉

1) 〈평면도〉

‘작은 별장’의 평면도를 보기 전, 이 건축물에는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입구가 마치 배 갑판의 승강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내에 있는 창문을 열면 지중해가 보이는데, 이것은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건축물 자체를 ‘바다에 떠있는 선박’ 같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평면도를 보면, 불과 4평 밖에 되지 않는 넓이에 책장, 침대, 옷장, 심지어 화장실까지 온갖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혹은, 생각 없이 설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별장은 고심 끝에 설계하고,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좌측 - 작은 별장 안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 〈우측 - 작은 별장의 배치도〉

1 - camping units; 2 - restaurant; 3 - cabanon; 4 - atelier; 5 - eileen gray's house; 6 - the sea

## 2) <주변 환경>

‘작은 별장’ 의 평면도를 처음 봤을 때는 ‘왜 별장 안에 샤워 시설과 부엌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글을 읽고 나서 그것은 괜한 걱정 이었던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별장 외부 스케치를 보면 별장 바로 옆에는 ‘불가사리 식당’ 이라는 당시 르 코르뷔지에가 자주 갔던 식당이 있었고, 별장 앞쪽에는 ‘간단한 샤워 시설’ 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인간을 위한 건축’ 을 건축의 기본요소로 삼으며 추구했지만, ‘자신이 사는 집’ 에는 관대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마리오 보타

<리고르네토의 집>

1976



게리트 토머스 리트벨트

<슈뢰더 하우스>

1924

이 책을 읽고 다시금 ‘건축이란 무엇일까’ 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건축이란,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 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선자는 건축가, 혹은 설계자를 칭하고, 후자는 거주자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건축가들은 아름답고 편리한 내부를 설계함으로써 거주자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아름다운 외부를 설계함으로써, 지나가다 그 건축물을 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나는 이 <집을 순례하다> 라는 책 안에서 인상 깊게 본 건축물이, 모두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의 작품 이었다.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집은 거주하기 위한 기계’ , 여기서 ‘기계’ 라는 차가운 단어에 비해, 그는 거주자가 평소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사소한 부분 하나 까지 신경을 쓰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책 안에서,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 말고도, 게리트 토머스 리트벨트의 <슈뢰더 하우스> 라던가, 마리오 보타의 <리고르네토의 집> 역시 딱딱하고 단조로워 보였던 첫인상과는 다르

게 건축가의 사상이 넘치고 배려가 가득했던 작품이었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건축은,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안에 사용자가 존재하기에, 건축이라는 행위는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다. 아무리 외관이 아름다운 건축이라 한들, 그 안이 편리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건축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의 최대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특정한 건축물을 소개할 때, 평소 논문에서 볼 수 있던 딱딱한 어투가 아닌, 마치 여행기행문같이 자연스러운 어체와 더불어 작가가 직접 답사를 갔을 때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 등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갈 때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으며, 책의 제목 그대로 마치 내가 그 집을 실제로 순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각각의 건축물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한편으론 아쉬웠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더 많은 건축물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다.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이 책 안에 있는 건축물들은 꼭 한번 답사를 가볼 예정이다. 이렇게 위대한 거장들의 건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밌었고, 책을 추천해주신 교수님, 또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이 책의 작가 분께 매우 감사드린다.

## 첨 부 자 료

〈어머니의 집 외관 1〉

〈어머니의 집 외관 2〉

〈어머니의 집 평면도, 리본 원도 스케치〉

〈어머니의 집의 리본 원도〉

〈어머니의 집 전망창〉

〈어머니의 집 내부에서 바라본 정원〉

〈어머니의 집의 옥상 정원〉

〈옥상 정원 2〉

〈작은 별장의 외관〉

〈빌라 사보아의 입면전경〉

〈유니테 다비타 시옹의 입면전경〉

〈작은 별장의 평면도〉

〈작은 별장의 입구〉

〈좌측-작은 별장 안에 있는 르 코르뷔지에〉

〈우측-작은 별장의 배치도〉

마리오 보타 〈리고르네토의 집〉

게리트 토머스 리트벨트 〈슈뢰더 하우스〉

출처 : 구글 Google 이미지 검색